

# 밥값 무섭게 오른다, 점심값도 부담되네

### 8월 외식물가 전년 대비 광주 8.6%·전남 9.7% 상승 짜장면·냉면·김밥 '두 자릿수'...김치찌개 9.9% ↑ 빚비는 구내식당·편의점...유통가 식품 할인전 마련

올해 하반기에도 먹거리 가격이 줄지어 인상되면서 점심값마저 부담이 되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직장인과 대학생 등은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찾으며 외식물가 상승을 버티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참가적'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김치찌개 백반 1인분 평균 가격은 지난달 기준 7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700원) 올랐다.

짜장면 가격은 올해부터 6100원으로 오르며 전년 대비 10.9%(600원)의 인상률을 보였다.

삼계탕 한 그릇 값은 1만5400원으로, 전년보다 6.9%(1000원) 올랐다. 이외 냉면 15.2%(7900원→9100원), 칼국수 11.1%(7200원→8000원) 등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김밥 한 줄 가격마저 11.5%(2600원→2900원)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호남지방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8.6%·전남 9.7%로, 전남은 전국 평균 상승률(8.8%)을 웃돌았다.

광주·전남 외식물가는 4개월째 상승 중이다. 광주 외식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7월(9.9%) 이후 가장 높고, 전남은 1993년 3월(10.0%) 이후 29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점심 한 끼도 섣뚱 고르기 힘들 정도로 외식물가가 오르면 구내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식산업 정보 시스템 '더 외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기관 구내식당 카드 매출액(신한카드 매출로 전체 추산)은

4억원으로, 전달(2억원)보다 100%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의 2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카드 소비액은 한 달 새 13.3%(30억원→34억원) 늘었다.

유통업계는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겨냥한 식품 할인전에 뛰어들었다. 대형마트는 7000원대 '밥값 치킨'에 이어 밥값 탕수육, 3000원대 밥값 비빔밥 등을 내놓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비빔밥 도시락 3종을 3980원에 선보인다. 밥값 탕수육의 후속 상품으로 6000원대에 살 수 있는 '간소새우', '크림새우'도 함께 내놓았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도시락 수요는 매출에서 확인되고 있다. 롯데마트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시락 매출 실적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치솟는 물가에 가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단가까지 높아지면서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심은 이날부터 26개 라면 브랜드의 가격을 평

균 11.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라면 1봉지당 편의점 판매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이 됐다.

오리노도 이날부터 자사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편의점 판매가격을 보면 12개들이 초코파이 한 상자의 가격은 48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라 5000원을 넘어섰다.

팔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상 폭은 공급가 기준으로 팔도비빔면 9.8%, 왕뚜껍 11.0%, 틈새라면백계떡 9.9% 등이다.

지난달에는 CJ제일제당이 스펀 클래식(200g)의 편의점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고, 빙그레도 봉어짜만코와 빵도아 등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의 소매점 판매 가격을 20% 인상한 바 있다.

hy(옛 한국아쿠르트)는 이달 1일 대표제품인 '아쿠르트 라이트'의 가격을 200원에서 220원으로 10% 올렸다.

김치 가격도 오른다. CJ제일제당은 이날부터 '비비고' 김치 가격을 판로별로 평균 11.0% 올린다.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올릴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도농 농협 상생 행보 구례 산동농협 발전 기금으로 광주 비아농협 1000만원 지원

광주지역 농협이 전남 농촌농협에 도농 상생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비아농협이 지난 14일 구례 산동농협에 도농 상생 발전자금 1000만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비아농협은 지난 2019년부터 도농 상생 협약을 통해 농촌농협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광주·전남 농촌농협에 발전자금과 농기계 구매자금, 농업인 복합비료 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여 원을 지원해왔다. 또 농협중앙회 도농 상생 기금 조성에도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

산동농협은 이번에 지원받은 자금을 농업인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박홍식 비아농협 조합장은 "쌀값 하락과 태풍 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데, 도농 상생 발전자금 지원으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도농 교류의 밑거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하나로마트 활성화 논의  
농협경제제주 마트사업호남지사가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리마호텔에서 개최한 호남·제주권역 마트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하나로마트 점장 106명이 마트사업 확대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논의를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금융노조 오늘 전면 파업

### 광주은행 300명 동참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6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인다.

광주은행 노조는 조합원 30%에 해당하는 300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15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조합원 980명 가운데 300여 명이 16일 파업한다.

파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파업에 동참하는 일부 조합원은 서울 세종대로(세종~대한문)를 중심으로 열리는 금융노조 집회·행진에 참여한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대부분 은행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의당 위촉 투표 결과를 보면, 9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금융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노조와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협회는 14일까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단 노조가 제안한 임금 인상(인상률)은 애초 6.1%에서 5.2%로 다소 낮아졌다. 사측은 인상률 1.4%를 제시한 상태다.

이외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시행)과 영업점 폐쇄 때 사전 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난색을 보인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전국 7000여 사업장에서 조합원 10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에너지공대-獨 연구소, 세계 첫 수소에너지 연구소 나주 개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수소에너지 연구소를 나주에 개소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14일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대학 1호관 켄텍홀에서 '켄텍-프라운호퍼 수소에너지 FIP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에너지공대와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에너지 FIP(프라운호퍼 이노베이션 플랫폼) 연구소를 열게 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이 연구소에서 수소의 생산, 저

장, 운송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 개발부터 최종 기술 상용화까지 함께 추진한다.

수소에너지 전문가인 황지현 에너지공대 수소에너지 트랙 교수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Klemens Ilse 박사가 책임 운영을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정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이현빈 한국전력 경영지원부사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Anett Schwarz 독일대사관 과학참사관, 박병관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대표, 하형은 SK E&S 부

사장, 전경문 SK E&S 부사장, 최종태 한국가스기술공사 부부장, 송준영 한국기계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은 "개교 이후 1년 만에 수소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유치한 것은 수소에너지 연구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한 성과"라며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천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산업단지공단, 광주권 산단 규제혁신 간담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15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현상 어려움을 경취하고 그림자·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산단 입주기업 및 경영자협의회 중심으로 기업 활동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건의, 광주권 산단의 활력 제고와 미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첨단국가산단·평동일반산단 등 15개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해 광주시 북구·광산구, 유관기관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단 내 입지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기간 연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경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규제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지원기관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날 제시된 의견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해결, 정부 건의가 필요한 의제는 향후 각 지역별 산업단지 규제 간담회를 통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환 이사장은 "광주지역 산업단지의 활력과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기업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애로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여성 경영인 간담회 열어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은 1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회장 김영) 소속 여성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는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조달청은 사이트 '벤처나라' 이용법과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우수조달 물품 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공진 광주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성기업이 성공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ATM 63개 늘었다

### 지난해 8028개...서울 635대 등 전국 1188대 감소

지난해 전국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1188대 사라진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6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ATM(은행, 우체국금융)은 등 8028대로, 전년(7965대)보다 63대(0.8%) 증가했다.

광주 ATM은 2020년 3329대에서 3350대로 21대(0.6%) 늘고, 전남은 4636대에서 4678대로 42대(0.9%)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ATM은 11만7282대로, 10개 시도에서 1188대 줄고 7개 지역에서 847대가 늘며 전반적으로 341대(-0.3%) 감소했다.

1년 새 ATM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635대)과 부산(-157대) 등 10개 시도였다. 경기(475대↑)와 인천(136대), 광주·전남 등 7개 시·도는 ATM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광주 ATM은 2019년 3361대에서 2020년 3329대로, 32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전남은 4603대(2019년)→4636대(2020년)→4678대(2021년)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한편 지난해 기준 단위면적(1km)당 설치된 ATM은 서울이 33.9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 8.9대, 광주 6.7대, 대전 6.0대, 대구 5.8대, 인천 5.7대 순이었다. 전남은 0.4대로, 강원(0.3대)에 이어 경북과 함께 두 번째로 적었다.

송 의원은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대,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 속에서 국민의 현금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TM기가 중복으로 설치되거나 급격히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 간 효율적인 ATM 운영공조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2400 '턱걸이'...환율 1400원 '턱밑'

15일 코스피가 이를 연속 내리며 2400선에 턱 걸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59포인트(0.40%) 내린 2401.83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35억원, 1444억원을 순매도하며 이틀째 동반 매도 우위를 유지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508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497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에 쏟아진 매물을 받아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한 데 이어 코스피도 오전에는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반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 강도가 거세

지자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밀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8원 오른 1393.7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1391.0원에 개장해 오후 1시 5분께 1397.9원까지 치솟았다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자 상승 폭을 반납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보면 환율은 전남 기록한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5포인트(0.20%) 내린 781.38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44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05억원, 317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1.83(-9.59)
↓ 코스닥	781.38(-1.55)
↑ 금리(국고채 3년)	3.770(+0.185)
↑ 환율(USD)	1393.70(+2.80)